

크리스마스 씰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무성 의원

“협회 모금 사업 활성화는 북한 결핵퇴치에 큰 역할”

지난 5월 1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는 '통일시대 한반도 결핵퇴치전략'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.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무성 의원, 문정림 의원과 배우 이순재 씨가 크리스마스 씰 홍보대사로 임명되어, 향후 국내외 결핵퇴치 홍보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. 특히 김무성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자신도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음을 밝히며, 크리스마스 씰 홍보대사를 맡게 된 특별한 배경을 공개했다.

정근 회장 매우 중요한 시기에 「보건세계」 독자들을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난 토론회 이후 심각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관심 밖이었던 북한의 결핵 문제가 재조명되고 공론화된 것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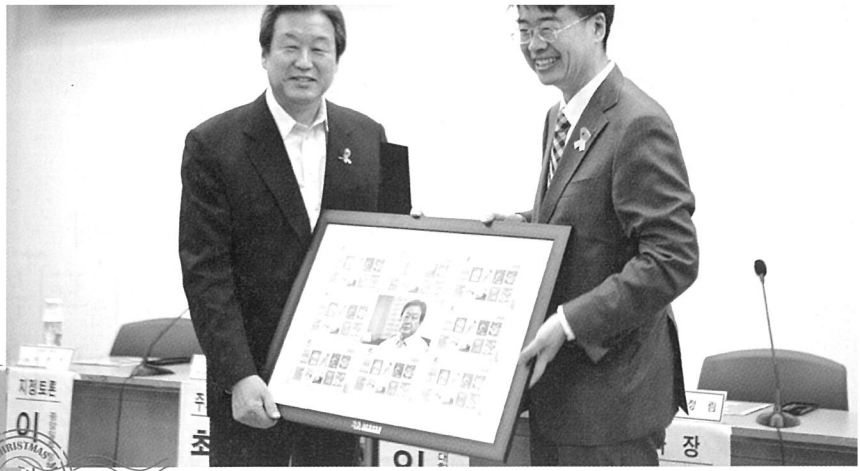
김무성 의원 통일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. 정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장애물이 많은데, 한민족이라는 정서를 바탕으로 결핵퇴치사업을 통한 관계회복, 그리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 북한결핵 퇴치를 지원한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.

정근 회장 네, 맞습니다. 국내에서도 결핵퇴치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멀지만, 북한의 경우는 매우 심각합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붕괴와 함께 결핵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결핵환자가 무척 많았습니다. 의원님께서도 결핵을 앓으신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,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?

김무성 의원 저는 대학시절 결핵을 앓았습니다. 결핵은 한번 걸리면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그 6개월은 질병과의 싸움이자 곧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.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지만, 그 길고 힘든 시간을 통해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정근 회장 당시만 해도 결핵은 유병률이 꽤 높은 전염병이었지요. 저도 1975년 고등학교 재학 시절 결핵을 앓았습니다. 폐결핵으로 병원을 드니다들면서 '의사라는 직업에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, 의사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시절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.





5월 14일, 국회토론회에서 크리스마스 쉼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무성 의원

김무성 의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, 힘들었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더욱 단단해지고,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결핵 투병으로 힘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
정근 회장 이번에 협회 크리스마스 쉼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는데, 학창시절 쉼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주세요.

김무성 의원 우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쉼을 구입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. 저 역시 크리스마스카드에 정성스레 쉼을 붙여 보내던 기억이 납니다. 요즘 크리스마스 쉼 모금이 많이 저조하다고 하는데, 과거 결핵환자가 많았던 시절 크리스마스 쉼 모금액을 재원으로 우리나라 결핵이 이만큼 줄어든 것처럼, 북한의 결핵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정근 회장 크리스마스 쉼을 아껴주시고, 소중한 말씀까지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앞으로 국내 결핵 퇴치는 물론 북한 결핵퇴치 지원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.

청소년기, 결핵을 앓았던 한 소년은 그 경험을 통해 의사의 꿈을 꾸었고, 후에 대한결핵협회장이 되었다. 비슷한 시기에 결핵을 앓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고, 크리스마스 쉼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.

‘결핵’을 앓았던 공통분모를 가진 두 사람의 남다른 인연, 북한 결핵퇴치사업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. †

